

지역 소식통



부안군, 강형욱 훈련사 초청 9월 4일 팻티켓 특강

부안군은 9월 4일(오후 5시부터 6시 30분) 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개봉령 강형욱 훈련사의 반려견과 함께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다.

군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올바른 동물돌봄 문화, '사랑과 반려견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 훈련사를 초빙한 배경이다.

강 명사 특강은 당일 오후 4시부터 부안군민 500명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반려동물과 입장은 불가하다.

특강을 통해 개 물림사고 시 대처방안, 반려견과의 선택적 주의사항, 주변 사람과의 관계형성 등 반려가족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어류 이동병원' 운영

정읍시는 지난 24일 민물고기 어병 발생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어류 이동병원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진료서비스는 내수면 양식 어류 입·출하기를 맞이해 내수면 어업 양식장을 운영하는 지역 내 90여개 생산 어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어류 이동병원은 전북도 수산물안전센터와 협업체 관련 공무원과 어류 질병 관리 전문가인 공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양식 어가의 어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양식장에서 빈번히 발생 되는 질병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초동진단과 처방을 했다.

시 관계자는 "내수면 양식장 생산안전과 수산생물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병원 운영 등 어류 안전생산기술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선정

정읍시, 국비 9억8000만원 확보... 보급 확산 통해 에너지자립 · 탄소중립 달성 기대

정읍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공개평가 결과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9억 8천만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1층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일부 지역의 주택, 건물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읍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서 2021년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2024년에는 6개동(수성, 장명, 내장상, 시기, 초산, 연지) 일원에 총사업비 21억 80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250개소 77kW, 태양열 10개소 136㎡, 지열 8개소 140kW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4년 연속 이어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에너지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편 시는 지금까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비 827가구 2481kW 규모를 설치했다. 그 결과 일반주택 3kW 태양광 발전시설은 가정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 4~5만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었다.

시는 올해에도 총사업비 31억원 규모로 태양광 386개소 1158kW, 태양열 30개소 306㎡, 지열 15개소 262.5kW의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영농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가루쌀 생산단지, 벼 생육후기 영농현장 점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4일 계화면 드림영농조합법인(대표 강종석)의 가루쌀(바로미2) 원료곡 생산단지를 방문하여 가루쌀 생육상황과 병충해

방제현황을 점검하고 출수기 이후 알거름 시비 및 수확 후 관리 등 적극 현장 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4일 계화면 드림영농조합법인(대표 강종석)의 가루쌀(바로미2) 원료곡 생산단지를 방문하여 가루쌀 생육상황과 병충해 방제현황을 점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가루쌀(바로미2)은 가공용으로 건식제분이 가능하여 가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밀과 안정적으로 이모작이 가능하여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심과제로서 부안군에는 가루쌀 원료곡단지, 채종포단지, 생산단지에서 80ha가 재배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안면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 상황과 피해현장을 둘러보며 농업인들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익현 군수는 지금의 기후는 이상 기상을 넘어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농작물 후기관리 및 병충해 방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농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서 태어난 아기황새 명칭 공개... '찬란이 · 행복이 · 활력이'

고창군에서 태어난 아기황새 3마리의 이름이 찬란이, 행복이, 활력이로 결정됐다.

25일 고창군은 고창 아기황새 3마리 군민 명칭공모 결과를 공개했다. 황새 이름공모는 고창에서 태어난 황새의 이름을 지역과 연관된 단어로 정해, 누구라도 쉽게 부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많은 군민들의 참여로 16건의 공모

작 접수되었다.

이 중 고창을 주된 '찬란이 · 행복이 · 활력이'라는 이름이 1등으로 선정됐다.

지난 6월 태어난 고창 아기황새 3마리는 가락지 번호 A03(부, 균형이)과 A77(모, 지황이)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호남권 최초 황새 자연부하의 성공사례에 해당한다.

아기황새 3마리의 이름은 "찬란하고 행복한 활력이 넘치는 고창이 되

기를 기대"하는 의미를 담았다.

앞서 천연기념물인 황새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국내에는 150여 마리의 개체수가 확인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아기황새 찬란이, 행복이, 활력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위상을 높이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탐방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8월 소통의 날 개최

직원 600여명 참석 폭우 복구작업 등 노고 격려... 켈리 최 초청 특강

정읍시는 25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소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학수 시장은 이번 여름 장마와 폭우로 인한 복구작업과 비상근무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가을철 축제와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울러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사업 필요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인 켈리 켈리의 회장, 켈리 최를 초청해 '인생이 바뀌는 행복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서 켈리 최는 "인생이 바뀌는 행복의 비밀은 진정한 부단 무엇인지



알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라며 WEALTHINKING(웰싱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고난과 실패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가로 성공하기까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성공스토리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켈리 최는 정읍시 정우면이 고향으로 유럽 13개국, 120여개의 매장을 보유한 켈리켄디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모교인 정우초등학교와 정우중학교에 각각 1500만 원씩 3,0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국제우호교류도시 중국 태주시 관계자 방문

전북 고창군의 국제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강소성 태주시 관계자들이 고창군을 찾았다. 중국 지방정부 인사들이 고창을 찾은 것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향후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 유치를 위한 시급성이 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중국 태주시 고흥량 인민정부 부비 서장을 포함해 6명이 심덕섭 고창군수와 환담을 갖고 양지역 교류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고창군과 태주시는 2019년 5월 우호교류 협의회 체결 후 코로나19 구호물품 전달 및 관내 중고등학교학생 중

심의 '청소년 외교관 운영' 등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은 양국 자치단체간 교류 강화와 우에 증진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태주시 방문단은 고창군의 주요관광지인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및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등을 둘러보면서 문화·관광의 연계홍보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특히 더욱 다채롭고 성대하게 개최하는 제50회 고창포안성제에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취업중개센터, 청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실시

정읍시 취업중개센터는 지난 25일 유럽마을 엔젤베르그 세미나실에서 청년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관내 청년구직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내 청년 구직자들이 기업의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면접능력을 키워 취업 성공을 돕고자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하루 만에 끝내는

NCS 기반 취업전략, 성공하는 사람들의 면접 노하우에 대한 교육이다. 부대행사로 이력서 사전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아로마테라피 등의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를 통한 대면교육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딱딱함을 느끼지 않도록 프로그램 중간에 엔젤베르그 단지투어도 진행돼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